

우리말과 우리글의
밝은 앞날을 기대하며 만든
6월 1차 게시 내용을
소개합니다.

너랑 나랑 우리말로

쉽표, 마침표.



우리말을 통해서 세상을 마주 보는 시간 '마주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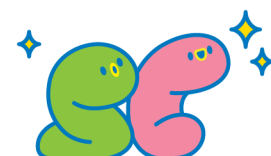
단어로 보는 우리말 변천사 2

너랑이가 알려드립니다! '우리말 상담소'



익숙지/익숙치 3

아름다운 우리말을 알아보는 '보이는 말, 들리는 말'



비그이 4

목차



단어로 보는 우리말 변천사

애오개와 아현은 원래 같은 지명이다?



애오개는 원래
작은 고개라는 뜻!



과거 애오개를 한자로
적은 것이 아현!



익숙지? 익숙치? 뭐가 맞아?

너랑이 답변

‘익숙지’가 맞아요.



‘익숙하다’의 경우,
‘하’ 앞의 받침의 소리가
[ㄱ]이므로 어간의 끝음절
‘하’가 통째로 줄어들어
‘익숙지’로 적어요.



여기서 ‘어간’은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말해요.

먹다 / 먹고 / 먹어서 / 먹으니

너랑이 답변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남는 경우예요.



‘하’ 앞의 받침의 소리가
[ㄱ, ㄷ, ㅂ] 이외의 경우에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어요.



간편게/간편케

추진도록/추진토록

달성게/달성케

청건대/청컨대

너랑이 답변

‘하’가 아주 줄어드는 경우예요.



‘하’ 앞의
받침의 소리가
[ㄱ, ㄷ, ㅂ]이면,
‘하’가 통째로 줄어요.



생각건대/생각컨대

깨끗지/깨끗치

섬섬지/섬섬치



익숙치가
아닌

익숙지!





비그이

비를 잠시 피하여
그치기를 기다리는 일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로, 찻집에 들어가 비그이를 했어요.

아름다운 우리말을
함께 살펴봐요!



이달의 단어
'비그이'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2025년 6월 호 1차 **심포, 마침표.**